

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

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(지사장 이관우)는 해빙기를 맞아 지사 관할구역 내 시행 중인 전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
오는 24일까지 지반의 동결·융해에 따른 절성토사면, 흙막이 지보공의 무너짐 및 가설구조물, 건설기계의 넘어짐 등 시설물 및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.

주요 점검사항으로는 △굴착면 적정 기울기 △지반 침하·균열·변형 △흙막이 지보공 변형·손상 △배면 토사유출 및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△콘크리트 적정강도 및 거푸집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.

결함이 발견되면 응급조치와 항구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해빙기 사고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.